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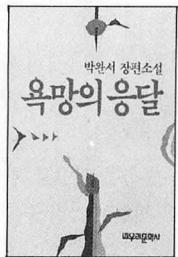
出協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23종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청소년도서' 89년 1~4월분으로 다음 23종의 도서가 뽑혔다.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총2천4백48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00부씩 모두 6,900부를 구입, 전국 각지방의 문화원 119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공공도서관 등 300곳에 배포했다. 89년도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예술 = 최일수(문학평론가) 남미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과학·기술 = 현원복(과학기술연구단지 대변인) △종교·철학 = 이은봉(덕성여대 교수) △역사 = 이현희(성신여대 교수) △인문·사회 = 송복(연세대 교수)

욕망의 응달

박완서 지음



9명의 배다른 남매가 살고 있는 우이동 3층 저택을 무대로 하여 인간성의 어둡고 음습한 면을 날카롭게 파헤친 장편소설. 지적이며 아름다운 미혼모 자명이 저택 집 막내아들 민우와 결혼하여 갖가지 사건 속으로 말려들어가는 과정을 추리수법으로 긴박감 넘치게 그리고 있다.

우리문학사 / A5신 / 314면 / 3500원

낮설은 얼굴들처럼

최옥경 지음



요절한 여류화가 최옥경의 시모음. 시인 김영태가 '화산같은 여자'라고 표현했듯이 강렬하고 정열적인 색채를 즐겨 썼던 그의 미술세계를 담은 84편의 시가 담겨 있다. 작가는 무수한 인간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맑게 비치는 빛은 바로 '사랑'임을 투시하고 있다.

열린책들 / A5변형 / 146면 / 2500원

열린 마음 열린 세상

李明賢 지음



80년대 중반 이후의 세태를 바라보며 저자가 느낀 여러가지 감상들을 수록한 수필집. 「삶은 더불어 있음이다」 「무엇이 나인가」 「낮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윤리」 「민주화와 절차적 정의」 등의 글들을 통해, 자기와 다른 생각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 줄 아는 자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철학과현실사 / A5신 / 294면 / 3300원

나무百科(2)

任慶彬 지음



나무의 신비스런 생명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살펴 정리한 책. 한라산 꼭대기와 지리산 노고단에서 자라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구상나무, 향살잎을 띠는 사시

나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잎을 지닌 오동나무 등 31가지 나무들에 대한 지식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사진도 수록해 이해를 도왔다.

一志社 / A5변형 / 288면 / 3000원

한국현대시 이해와 감상

홍윤기 엮음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한국현대시를 최초로 개척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현대시를 짧은 감상해설과 함께 수록했다. 新文學 개화기(1905~1920)의 김억·한용운의 시를 비롯해서 서구문학의 물결을 타고 왕성한 시인들이 쏟아졌던 1920년대의 박종화·김소월·변영로 시 등 1986년까지의 현대시를 여섯시기로 나눠 주요 작품을 통한 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한림출판사 / A5신 / 782면 / 6000원

자랑스런 나의 어머니 2

MBC교양제작국 엮음



MBC TV의 프로그램 「자랑스런 나의 어머니」에 방영됐던 청소년들의 수기를 모은 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권으로 엮어졌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가난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도 '강한 어머니의 애정'으로 자녀를 키워온 이야기 42편이 실려 있다. 청소년들의 맑은 눈을 통해 비친 '어머니 사랑'의 솔한 사연들마다 진한 감동을 준다.

청조사 / A5신 / 278면 / 3000원

티베트에서의 7년

하인리히 하러 지음 / 한영탁 옮김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등산가이고 올림픽 스키대표수였던 하인리히 하러의 모험여행기. 하러는 히말라야 등반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 영국군의 포로

가 된 후 여러번의 탈출 시도 끝에 티베트에 들어가 7년 동안 머물게 된다. 티베트의 도시라사에 도착하기까지의 험난했던 여행과 그 후 티베트에 머물면서 관찰한 기이한 풍습, 라마교와 정치의 관계, 그리고 지형지물 등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다.

秀文出版社 / A5변형 / 374면 / 4800원

由熙

李良枝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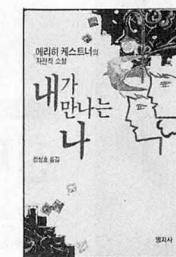


일본의 아쿠다가와상(제100회)을 수상한 제일동포 여류작가 李良枝의 소설집. 수상작인 「由熙」를 비롯해 작가의 개인체험을 토대삼아 제일동포의 짝긴 삶을 주제로 한 「나비타령」 「해녀」 등 5편의 단편이 담겨 있다. 표제작 「유희」 역시 제일동포2세인 주인공이 고국에 와서 느끼는 이방감을 섬세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삼신각 / A5신 / 356면 / 3800원

내가 만나는 나

에리히 케스트너 지음 / 정성호 옮김



독일 게오르크 뷔히너상 수상작가 에리히 케스트너의 자전적 소설.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작가의 천재적인 재치와 필치로 그려나간 작품이다. 통좁은 스커트를 입은 숙녀들, 높게 지켜올라간 콧수염을 기른 황제 등등 어린시절의 추억과 함께 모자간의 사랑과 슬픔의 감정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명지사 / A5신 / 288면 / 3300원

나의 어머니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

알베르 코엔 지음 / 지정숙 옮김



그리스 코르프섬에서 출생한 유대계 작가 알베르 코엔의 소설. "내가 작품을 쓰는 첫번째 필요성은 유대인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말하고 싶은 것이요, 또한 유대인들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것이다"고 고백한 작가의 말처럼 이 작품 역시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의 고통과 강한 자부심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신아사 / A5신 / 204면 / 2300원

동양화 읽는 법

조용진 지음



동양화에서는, 서로 피는 계절이 다른 꽃들을 한 화면에 그린다든지, 일정한 형식으로 수백년 동안 같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저자는 이에 대해, 화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문구로 미리 정해 그 문구와 발음이 같은 사물을 택하여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예들을 흥미롭게 소개했다.

集文堂 / B5변형 / 212면 / 5000원

이 모든 것의 철학적 의미는?

토마스 네이글 지음 / 김형철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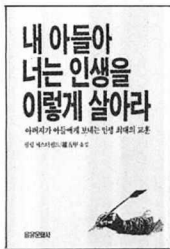


‘죽음 후에도 삶은 있는가’ ‘인간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등 진부하지만 늘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쉽게 풀어 설명한 철학입문서. 자유의지, 정의, 죽음과

그림, 죽음과 삶 등이 지닌 철학적 의미를 하나씩 사유해나감으로써 철학하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내 아들이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

필립 체스터필드 지음 / 권오갑 옮김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필가인 체스터필드(1694~1773)가 아들 필립 스탠호프에게 보낸 교훈적 내용의 편지들을 모은 책으로, 인생의 출발점에 선 젊은이들이 올바른 생을 살아가 수 있도록 평범하지만 소중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상류사회에서 紳士道 교과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작품.

울유문화사 / A5신 / 226면 / 2700원

하버드 스토리

최종고 지음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문대학 하버드의 역사와 문화,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을 생생하게 소개한 최종고 교수(서울대 법대)의 하버드론. 저자가 하버드대 법대에서 연구생활을 하며 보고 들은 것들을 중심으로, 지성의 산실로서 대학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고려원 / A5신 / 412면 / 4500원

안개꽃 혹은 서울의 꿈

나영자 외 지음



14명의 시인이 오늘의 젊은이를 위해 쓴 신작 시 모음. 「안개꽃」 「겨울숲」 등 일상적인 언어로 삶의 고뇌와 애환을 그린 나영자의 시를 비롯해서 「혼자뜨는 달」 「집」 등 전통시정을 바탕으로 내면적인 평화로움을 갈구하는 이재호의 시편들과 박종철 · 나호열 · 이충이 · 정형택 등의 작품 몇편씩을 모아 엮었다.

서울 / A6변형 / 144면 / 1500원

빛과 사랑과 용서를

김찬식 지음



칼럼니스트 김찬식씨의 에세이집. 저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있는 일은 ‘진실과 사랑’이라고 보고, 값진 인생의 모형을 보였던 인물들의 발자취를 통해 인생의 진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갈릴레오 · 아인슈타인 · 루스벨트 · 孫文 등의 외국인물과 정약용 · 황희 · 김좌진 등 우리나라의 인물에 대한 짙막한 이야기를 실고 있다.

해문출판사 / A5변형 / 202면 / 1500원

오늘의 교양 365일

李又載 著



동서고금의 철학자 · 정치가 · 명인들의 명언 · 금언 365가지를 모은 책. 하루 한가지씩 성현들의 체험 속에 녹아 있는 교훈을 깨우침으로써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으려 하고 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뜻대로 이뤄진다’는 ‘명심보감’의 교훈을 비롯해서 ‘한가지 태만한 자는 만가지가 태만하다’는 영국금언 등 다양한 내용을 고루 담았다.

미래문화사 / A5신 / 600면 / 5000원

이집트 구르나마을 이야기

하싼 화티 지음 / 鄭奇溶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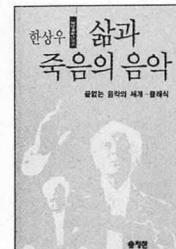


흠뻑돌이라는 전통적인 건축자재를 이용해 이집트 구르나마을을 건설했던 건축가 하싼 화티가 자신의 건축관을 비롯해 건설계획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물이해와 편견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작품. 전통적인 축조기술을 직접 익히고 전수, 이상적인 농촌마을로 건설하려 했던 과정이 그려져 있다. 현대화에 밀려 전통적인 주거환경을 잃어가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책이다.

열화당 / A5신 / 318면 / 6000원

삶과 죽음의 음악

한상우 지음



고전음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음악평론가 한상우씨가 그동안 월간지 등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엮은 책. 유럽 및 미국 등지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살피고, 레너드 번스타인 · 게오르그 솔티 · 주빈 메타 등 명지휘자에 대한 소개, 음악가와 대표작, 악기와 음악의 관계 등을 해설했다. 고전음악 애호가들이 부담 없이 차원높은 음악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엮은 클래식 입문서이다.

청한 / A5신 / 448면 / 5800원

우리 자신 속의 독재자

크리슈나무르티 지음 / 박상준 옮김



인도의 명상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의 가르침을 담은 책. 60여장의 원색 사진을 비롯해 그의 생애를 기리는 주변의 추억담도 함께 수록하고 있어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괴물스럽고 추악한 이세상은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 ‘매일매일이 참으로 좋은 날’ 등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를 역설했다.

명상 / A5신 / 228면 / 3800원

프랑스혁명

로버트 모올러 지음 / 지방훈 역



만화로 엮은 프랑스 혁명사. 영국에서 발간돼 좋은 평가를 받았던 「비기너스 북 시리즈」 제4권을 우리말로 옮겼다. 지음과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났던 프랑스혁명의 복잡한 전개과정을 간략하면서도 충실하게 정리해놓고 있어, 새시대를 연역사적 사건의 본질과 전말을 부담없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汎友社 / A5신 / 176면 / 2500원

아폴로박사의 과학만보

조경철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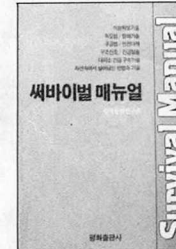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 과학지식을 웃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씌어진 책. 우주에 대한 기초 지식에서부터 태양계의 운동, 인류의 기원, 역사에 나타난 의혹의 지구

유적, 우주인과 UFO, 로켓으로 개척된 우주공간, 최근의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126항목으로 분류,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대광문화사 / A5신 / 286면 / 3500원

써바이벌 매뉴얼

한국등산연구소 지음



‘써바이벌’이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가리킨다. 야외에서 성냥없이 불을 피우고, 낚시도구를 직접 만들어 고기를 잡는 것 등이 모든 써바이벌 기술로, 이 책은 야외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평화출판사 / B6 / 240면 / 2800원